

# “AI 반도체 시장 확대 위해 정부-기업-대학 협력모델 필요”

양오봉 전북대 총장, 민주 정동영 의원 주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서 강조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지난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에 참석해 AI 반도체 시장 확대와 대학의 연구 개발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지역 거점대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

영 의원(전북 전주시 병)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이 공동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의 8차 토론회로 진행됐다.

포럼에서 정동영 의원은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의 '국내 펌리스 경쟁력 강화 및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의 제언' 주제 발표를 경청하며, 국내 AI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주목했다.

이날 특별 초청돼 참석한 양오봉 총장은 "AI 반도체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지역 대학들과 협력하는 교육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역 대학, 그 중에서도 거점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 대학 출신 인재들은 수도권 대학 출신에 비해 이직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로열티가 높다"라며 "지역의 거점대학은 좋은 인재 양성에, 기업들은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양 총장은 또한 대학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룰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지역 대학의 연구 개발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까지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조찬포럼에는 학계와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AI·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전략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학교는 쿠뮤필름스튜디오와 지역의 영상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19일 체결했다. 사진은 박진배 전주대 총장, 피터류 쿠뮤필름스튜디오 대표, 이성국 전주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이다.

## 전주 영상 산업 생태계 조성·활성화 '맞손'

전주대, 쿠뮤필름스튜디오와 업무협약 체결... RISE 일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쿠뮤필름스튜디오와 지역의 영상 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1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대학 본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쿠뮤필름스튜디오 피터류 대표, 양수연 본부장 및 전주시의회 이성국 문화경제부위원장이 함께 했으며, 전주대학교는 박진배 총장, 윤찬영 대외부총장, 강승묵 문화융합대학장, 김상진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한 영회방송학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 영상산업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RISE 등의 프로그램 기획과 협력 △지역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발굴 및 채용연계에 관한 협력을 비롯해 지

역 영상산업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쿠뮤필름스튜디오는 지난 11월 한국 법인 출범식을 열었으며,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주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 영화종합촬영소를 맡아 운영할 계획으로 전주대 영화방송학과와 전주시 및 쿠뮤필름스튜디오 간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예상된다.

쿠뮤필름스튜디오 피터류 대표는 "전주 지역의 영상 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업무 협약을 맺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영화 산업은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전주가 영회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쿠뮤필름스튜디오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은 "전주시는 영화 산업 수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영화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주대가 보유한 영화영상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성이 글로벌 영화 산업을 선도하는 쿠뮤필름스튜디오와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여 우리 지역 영상 산업과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따라 전주대는 지역 발전과 연계한 방향으로 각종 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쿠뮤필름스튜디오와 업무 협약도 그 일환으로, 전주대가 전북과 전주 지역의 영상 콘텐츠 전문인재 양성을 주도하고 그 전문인재가 지역 내 취업과 창업을 통해 지역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지난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 전북교육청, 내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 단행

승진 207명 등 총 813명 규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사 규모는 승진 207명(3급 1명, 4급 2명, 5급 24명, 6급 89명, 7급 89명, 8급 2명), 전보 391명(3급 1명, 4급 14명, 5급 34명, 6급 128명, 7급 132명, 8급 78명, 9급 4명), 신규임용 45명 등 총 813명이다.

이번 인사는 지방공무원의 승진 임용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주요 정책 추진에 적합하도록 업무의 특성·직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북교육청은 설명했다.

먼저 전주학생교육문화관장에 김형대 부이사관(현 익산학생교육문화관장)을 전보발령했고, 익산학생교육문화관장에 양서연 부이사관(현 군산학생교육문화관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분청 과장급도 큰 폭의 교체가 이루어



김형대

양서연

어졌다. △총무과장은 조철호 서기관 △행정과장 김정주 서기관 △노사협력과장 노경숙 서기관 △시설과장 안홍일 서기관 △청렴총괄·감사담당 심화정 서기관 △정책기획·조정담당 김중현 서기관이 발령됐다.

이어 2025년 1월 1일자로 총무과에 신설되는 △대외업무담당에 김중기 서기관, △군산학생교육문화관장에 홍공숙 서기관 △남원학생교육문화관장에 김현주 서기관 △부안학생교육문화관장에 박수진 서기관 △김제학생교육문화관장에 김영주 서기관 △교직원

수원원장에 남궁옥 서기관 △교육연구 수원 총무부장에 김필중 서기관 △행정연구수부장에 최원창 서기관 △미래교육연구 수원 총무부장에 정이성 서기관 △학생수원원 총무부장에 전현규 서기관을 각각 발령했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과장에 장경단 사무관,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에 서유경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중앙교육연구원 고급관리자 과정에는 이현규 부이사관과 최혜영 서기관을 과전 발령했다.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 전보는 개인별 전보희망을 반영하는 전보희망제에 따라 본인 희망지역에 배치했으며, 승진자와 신규임용 공무원은 명부 순위에 따라 결원기관 및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 발령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업무수행 능력과 소용능력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전북교육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벽을 허물다'... 전북대, 지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성과 포럼

식품연구원·전북연구원 등 5개 연구과제 성과 공유... 15개 국제공동연구과제 포스터 전시도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 연구기관 간 벽을 허물고, 공동 연구를 통해 혁신 융합 공동캠퍼스 구축에 나서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그동안 연구과제의 성과를 공유하는 포럼을 지난 18일 전북대 진수당 77주년 기념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대와 지역 핵심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의 초석을 놓는 자·산·학·연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포럼에는 전북대 양오봉 총장과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허정두 안전평가연구소장, 임문택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 함상욱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정책부장, 김보국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이재준 교육부 산학협력추진사업지원과장 등 대학 및 지역 연구기관, 교육부 관계자, 연구자들이 참여해 공동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식품연구원과 3개, 전북연구원과 1개의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 과제들에 대해 그동안의 공동연구 성과가 발표됐고,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지식창출 기관 중심의 지역 클러스터링 조성과 혁신성장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대학과 연구기관, 지역 산업체가 협력하여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장은 흡입 및 중대동물 기반 독성 연구 분야에서 전북대의 공동연구 수행 필요성 및 학연 협력을 제안하였고, 서유화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장은 산학연 벽 허물기 기술창업-기술이전-기술사업화/기술



지난 18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77주년 기념홀에서 지역 연구기관 공동연구 성과 포럼이 열렸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 전북교육청, 유보통합관리일원화추진단 협의회

유보통합 성공적 추진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유보통합 관리 일원화를 위한 '2024년 유보통합관리일원화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7월 교육부로 이관된 영유아 보육 사무를 유보통합 3원 시행 이후 교육청으로 통합, 안정적인 일원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보통합관리일원화추진단은 유정기 부교육감을 단장, 운영임 교육국장을

부단장으로 해 전북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교육청과 전북자치도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안정적으로 이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실무분과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2024년 제2회

고창 교육거버넌스위원회 개최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오)은 19일 고창교육 발전을 위한 제2회 고창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승오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해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 후 △제3기 고창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25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등을 논의했다.

유승오 교육장은 "새롭게 위촉된 제3기 고창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고창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관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오세환 고창군의회 의원은 "제3기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분들의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고창 교육거버넌스위원회가 고창 교육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북교육청, 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 운영 결과 발표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 전북대학교 나이팅게일홀에서 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내 보건교사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2024년 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 운영 결과 및 보건교사 연구회(연수회)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1부는 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에서 △학생건강증진 정책 중점기 방향 제언

△교원 및 학부모 맞춤형 연수 결과 △학생건강상담 성과 및 소아당뇨클리프 운영결과 △감염병 예방 강화 연수 △학생 건강증진 정책사업 분석 등 2024년도 추진한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보건교사 연구회 및 연수회에서 개발한 △금연 마블을 활용한 흡연예방교육 △담배 없는 세상을 향한 토크 아이디어 사업 △에듀테크(ZEP) 활용 학생 참여형 보건교육 활용 방법 등을 발표, 공유했다.

/김재훈 기자

산업화로 이어져 기술산업화를 촉진할 산학연 연계방안을 제안했다.

학연 공동연구 성과 발표에서는 전북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근간소중 개선 위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푸드테크 기술 혁신을 위한 원시 식품 데이터 이미지 변환 딥러닝 기술 개발, △과채류의 과잉 케르세틴에 의한 건강 이상 예방을 위한 현장형 검출 센서 개발과 관련한 성과와 확대 방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통해 지역 식품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전북연구원과 수행하고 있는 △생물문화다양성을 활용한 지역특화 모델 구상과 △전북특별자치도 생물문화다양성 증진 방향에 대한 성과 발표가 있었다. 이 연구 성과를 통해 지역의 생태적 특성과 문화적 자산을 융합하여 전북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모색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TOP100 진입을 목표로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15개 국제공동연구과제의 포스터가 전시되어, 지역과 세계를 선도하는 전북대학교의 연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김재훈 기자